

|| 발간사 ||

산업간호사 선생님들께...



어미속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제일모직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지부장을 맡고 있는 어미속입니다.

먼저 제13권 1호에 머리글을 올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2회 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각 지부별로 총회를 개최하였고 '06년도 산업간호업무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지금쯤은 계획하신대로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며 바쁜 일정으로 하루하루를 뛰어가시리라 짐작됩니다.

매 분기마다 산간협회지는 받아 들 때면 '우리의 업무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보들이 넘쳐 나고 있지만 오롯이 우리들만을 위해 우리들에 의해 엮어진 우리들의 산지식들을 저는 교과서로 삼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읽기는 쉽지만 특별히 기획하고 애써 꾸민 작품들을 정성껏 다듬어 주신 분들의 노고 잊지 마시고, 직장생활을 포함한 산업간호사의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각종 정보교류로 업무능력향상에 큰 스승이 되는 협회지를 우리모두 가까이 곁에 두고 활용하시기를...

년 초부터 저희 구미지역 회원님의 이직소식과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자료 그리고 산간협홈페이지에 올려진 계약직의 애환을 접하면서 실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 이루어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회원 각자 모두는 처한 상황 또한 각기 다릅니다. 일반적인 위로나 격려, 조언이 어려움에 처한 한 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랴 싶은 게 아득한 마음까지 듭니다.

개인적 능력 여부를 떠나 남성위주의 사회 구조적, 소수인원에 대한 무배려들...

저는 [좋은 일/고마운 일 50가지]를 1년 단위로 수년 동안 기록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금새 잊어버리곤 하기에 나쁜 일들이야 고맙지만 좋은 일/고마운 일들은 다시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가끔씩 삶의 무게에 한 숨 쉬다가도 그 것들을 추억하며 읽노라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친구들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들 중 회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모아 보면 - 따뜻한 홍삼원 2명을 건네주는 분, 남편과 함께 막창집에서 소주 사주신 동료, 고용계약여부 거둬 물어보시는 팀장님, 화이터데이 때 받은 사탕들, 회식 후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라며 용돈주신 분, 개선제안에 높이 평가해주신 팀장님, 5월 모란의 아름다움에 취해 바라보는 나를 꽃 같다며 농담해주시는 동료, 근무지 옆에 제비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구경오지 않겠냐는 전화, 열흘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우리가족 미국여행 계획에도 흔쾌히 허락하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던 팀원들, 여름내 내 이어지던 초록의 수박파티, 가족들과 횃집에 갔을 때 옆과장님이 벌써 우리 것까지 계산해주신 일, 회식자리 결코 빠지지 않음까지 칭찬해주시는 분, 각종 대외활동(산간회대의원총회- 지부총회 - 아이 학부 모회 참석-대한간협대의원총회- 구미산업보건협의회... 등등)너무 많아 민망해하며 올리는 결재들에 단 한 번도 브레이크 없는 인내심 있는 결재, 명절선물인 자사 의류상품권으로 아이들 새 학기 가방과 신발마련, 사보 퀴즈당첨으로 온 가족 영화관람, 개별혈압관리에 대한 감사로 양말과 넥타이를, 장수풍뎅이 유충 4마리, 시모상 당했을 때 부산까지 문상해주신 많은 분들, 20년 근속에 대한 부상으로 받은 중국여행... 그 모두에 사랑을 얹어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산업간호사들의 불리한 고용조건에 대해 항변할 때 근로감독관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해 들어보면 많은 간호사분이 자신의 보건업무 외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팀의 업무를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더군요.”라고.

제가 오랫동안 억울하여 내뱉는 말 “환경안전팀에서 간호사가 왜 특별대우는커녕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환경관리자에 비해 어디가 병신이길래...”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대로 개인적 능력 여부를 떠나 이 사회의 구조적인 남녀차별, 소수인원에 대한 무배려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조차 무시되는 현장에서 작은 소리로 말해봅니다. '사랑 받으려면 먼저 사랑스러워라'라는 말을 떠 올립니다. 우리 회사와 사원들로부터 사랑 받도록 능력을 키우고 뜻을 모아 하나되어 '나 여기 있노라'고 외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회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